






□ 재난유형별 홍보문구

유 형	홍보문구 및 홍보내용(예시)
자전거 안전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3만원 부과, 음주 측정거부시에는 10만원 부과 ○ 안전장비 및 안전모 착용 ○ 안전장치 장착 ⇒ 전조등 및 후미등 필수 사용 ○ 안전속도 지키기 및 안전거리 확보 ⇒ 시속 25km이상으로 달리면 속도가 빠르게 느껴져 사고가 날수 있으니, 초보자가 가장 편하고 멀리 갈수 있는 속도인 시속 20km이하로 타기를 권장 ○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 금지
가을 행락철 안전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락철 야외활동 시 안전사고 주의 !!! ⇒ 산행 시 벌이 좋아하는 향수나 요란한 색의 의복 피하기, 산이나 풀밭에 함부로 앉거나 눕지 않기 ○ 해썬은 가을山行, 하산은 한 두 시간 여유 있게... ⇒ 산행 전 기상정보, 산행코스, 소요시간 등을 숙지, 입산이 통제되거나 폐쇄된 등산로 이용금지 ○ 안전벨트는 생명지킴이, 안전운전으로 즐거운 나들이 ⇒ 행락철 음주·졸음운전 과속 금지, 안전거리 확보
산불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에 쌓인 낙엽은 불쏘시개, 산불조심! ⇒ 입산 시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음, 산불 발견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속히 신고
안전신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주변 안전취약요인 언제 어디서든지 신고접수 (https://www.safetyreport.go.kr)로! ⇒ 생활속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고하여 사전예방

자전거 안전 이용수칙

자전거 안전 5대 수칙

1.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모 쓰기
2.  야간운행에는 라이트 켜기
3.  과속금지! 안전속도 지키기
4.  휴대전화·이어폰 사용않기
5.  음주운전도 당연히 안하기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운전자·보행자 안전수칙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 앞 뒤 거리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해요!
2. **자전거 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습니다.
- 자전거도로 내 불법 주·정차는 자전거 사고의 주원인!
3. 차량 **우회전**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유의**합니다.
- 자전거는 차도 제일 우측에서 달립니다. 우회전시 특히 주의!
4. **운전자,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보행자는 인도로!
5.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피**서 길을 건넌니다.
- 자전거 충돌사고도 차량 충돌 만큼이나 위험해요!



자전거타기 주행원칙

우측통행

자전거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며, 속도가 가장 느린 차로 끝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의 왼쪽으로 내릴 경우 차량 쪽으로 몸이 쏠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타고 내립니다.

도로횡단

자전거횡단도가 없을 때는 차의 직진신호에 따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합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차,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 통과

주차된 차나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을 통과할 경우,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띄워 문이 열리거나 차가 출발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자전거가 지나감을 경음기와 육성으로 알리고, 맞은편이나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에 주의합니다. 좌측으로 추월(통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느리게 주행하는 차, 정지

한 차가 있는 경우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출발과 정지

자전거가 멈춘 상태에서 출발하고 완전히 정지한 후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발 전 뒤를 돌아보고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멈추기 전 뒤쪽을 확인하고 수신호로 정지할 것을 알린 뒤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전거리

자전거가 멈춘 상태에서 출발하고 완전히 정지한 후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발 전 뒤를 돌아보고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멈추기 전 뒤쪽을 확인하고 수신호로 정지할 것을 알린 뒤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 도로를 횡단할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내려서 천천히 끌고 갑니다.
- 골목길에서 큰길로 나갈때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우측통행을 지키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도나 골목길을 달릴 경우 보행자가 우선임을 잊지 말고 천천히 가야합니다.
-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나 손을 놓고 운전하지 말며,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 바지는 아랫부분이 너풀거리지 않도록 하며, 신발은 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짐을 지나치게 싣거나, 뒷자리에 다른사람을 태우면 핸들조작에 중심을 잃게 되어 위험합니다.
- 우산을 쓰거나 손에 물건을 들고 타지 말며, 슬리퍼를 신고 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밤에 탈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거나, 반사체 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 내리막 길에서 과속으로 주행시 급정거를 하면 자전거에 무리를 주어 넘어질 염려가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행락철 대비 야외활동 안전수칙

벌 쏘임 사고 시 안전수칙

【예 방】

-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과 밝은 계통의 의복을 피한다.
- 벌초 등 작업 시 사전 벌집 위치를 확인한다.
- 벌이 날아다니거나, 벌집을 건드려서 벌이 주위에 있을 때에는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손이나 손수건 등을 휘두르지 않는다.
- 벌을 만났을 때는 가능한 한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엎드린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등산 및 벌초 등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 야외활동 시 소매 긴 옷과 장화,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응급처치】

- 벌침은 핀셋보다는 전화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빼는 것이 좋다
-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뒤 안정을 취해야 한다.
- 체질에 따른 과민반응에 의해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어, 이때는 편안하게 누워 호흡을 편하게 해준 뒤 119에 신고한다.

뱀 물림 사고 시 안전수칙

【예 방】

- 벌초 시에는 두꺼운 등산화를 반드시 착용한다.
- 잡초가 많아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지팡이나 긴장대로 미리 헤쳐 안전유무를 확인한다.

【응급처치】

- 뱀에 물린 사람은 눕혀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게 한다.
- 물린 부위가 통증과 함께 부풀어 오르면, 물린 곳에서 5~10cm 위쪽을 끈이나 고무줄, 손수건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한다.
- 입에 상처가 없을 때 물린 부위를 약간 절개하고 입으로 독을 빨아낸다.

예초기, 낫 사용시 안전수칙

【예 방】

- 예초기 사용 시 칼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목이 긴 장화나 장갑,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예초날 안전장치(보호덮개)를 반드시 부착한다.
-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부착상태 확인 점검한다.
- 초보자는 안전한 나일론 카터를 사용한다.
- 작업하는 주위반경 15m 이내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응급처치】

-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고 소독약을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한다.
- 작업 중 칼날에 부딪힌 작은 돌 등의 이물질이 눈에 박혔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깜박거리며 눈물이 나도록 해 이물질이 자연적으로 빠져나오게 한다.
※ 눈을 비비며 이물질을 강제로 빼내려 하면 오히려 이물질이 더 깊이 들어가 상처가 악화될 수 있다.
- 손가락 등이 절단되었을 때에는 절단된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물로 씻은 후 멸균거즈로 싸서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한 후 주위에 물을 채우고 얼음을 넣어 신속하게 병원으로 간다.

유행성 출혈열 등 예방 안전수칙

【예 방】

- 야외활동 시 반드시 긴 옷을 입고 장화,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 작업 후에는 반드시 목욕하고 입은 옷은 세탁한다.
- 잔디나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는다.
- 성묘 및 야외활동 후 1~3주 사이에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서둘러 의사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행락철”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1. 차량 상태 및 안전 점검
 - 타이어 마모·공기압, 계기판, 등화, 안전장치 확인
 - 차량 주위, ‘보행자’ 및 ‘통행 방해물’ 확인
2. 출발전,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안내
 - 출발전, 안전띠 착용 안내방송·전달 및 확인
3. 동일 단체여행 차량과의 대열운행 금지
 - 시간차 이동 및 충분한 수의 중간 집결지 지정
4. 승객의 음주·가무행위 금지 안내
 - 승객 음주·가무행위 확인시 운행을 잠시 멈추고 중단 요청
5. 운전 전·중·후 음주 금지
 - 출발전 음주측정 실시, 주·정차 장소에서 음주 금지
6. 운전 중 졸음운전 금지
 - 충분히 휴식후 운전, 졸음쉼터 등 휴게소 적극 활용
7. 운전중 휴대폰·DMB 사용 금지
 - 운전중, 통화·SNS·인터넷 검색·TV 시청 등 금지

“행락철” 승객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공 통

1. 출발전, 안전띠 착용
2. 차량 이동중, 음주·가무행위 금지
 - 차량 이동중, 술 마시기·노래방기기 이용 금지
3. 차량 이동중, 자리 이동 및 변경 금지
4. 운전자 교통법규위반 행위 주의 및 신고
 - 안전거리·신호·정지선 위반, 과속, 휴대폰·DMB 사용 등

단체여행 인솔자

1. 출발전, 차량 상태 점검
 - 안전벨트 작동 및 안전장비 등 비치 여부
 - 차량 위생 점검 및 냉·난방 장치
 - 승객 탑승 차량 표지(앞, 뒤) 부착 여부

2. 출발전, 운전자 안전운전 준비 확인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출발 1주일 전 관할 경찰서 협조요청 또는 자체점검

■ 운전자 적격 확인 및 운행일정 협의

3. 출발전, 승객 안전교육 실시

■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비의 사용방법

“행락철” 교통사고 처리요령

1. 탑승자 전원,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사고발생 즉시 비상등 작동

■ 운전자는 차량을 도로 밖 안전한 곳(갓길 등)으로 이동

■ 승객 전원 안전한 곳(가드레일 밖)으로 이동

■ 사고사실을 후방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표지 설치(안전삼각대, 불꽃신호기 등)

긴급견인서비스 이용(☎1588-2504,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서의 사고·고장 차량에 대하여 휴게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서비스

2. 차량번호 및 운전자 전화번호 확인

■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시 쉽게 확인 및 기록 가능

3. 신속구호 및 부상치료 위해 구급신고(☎119)

■ 가벼운 사고라도 신속히 치료해야 후유증 예방

4.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신고(☎112)

■ 경찰관에 의한 신속한 사고현장 정리

■ 불필요한 다툼해소 및 사고원인 잘못된 해석 방지

5. 보험회사 등 사고 접수

■ 경찰 사고 신고와 보험사 사고접수는 별개 조치로 경찰 신고만으로 보험사에 자동접수 되지 않음

산악사고 예방요령

산악 안전사고 예방 10대 수칙

- 산행 전에 산행 코스,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 출입금지구역(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샛길 등)은 출입하지 않는다.
- 기상특보 때는 산행을 금하고, 이동 중인 탐방객은 빨리 하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낙뢰 예보가 있을 때 산행을 삼가 한다.
-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산행 계획을 수립한다.(절대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충분한 경험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는 암릉·암벽 등반을 하지 않는다.
- 폭우로 수량이 불어난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않는다.
- 산행 전·후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푼다.
- 계절별로 장비와 복장을 갖춘다.
- 될 수 있으면 단독 산행을 피한다.

산에 오를 때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 두 시간 전에 마친다.
- 하루 8시간을 산행하고, 체력의 30%는 비축한다.
- 일행 중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한다.
- 될 수 있으면 30킬로그램 이상의 짐을 지지 않는다.
- 배낭에는 기상이변 등을 대비 랜턴, 우의, 휴대전화(예비 축전지), 상비약품을 준비하고 손에는 될 수 있으면 물건을 들지 않는다.
-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성이 좋은 것을 신는다.
-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섭취한다.
- 산에서는 아는 길도 자주 지도를 보고 확인한다.
-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는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확인한다.
- 등반로 외의 산행을 삼가고,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여 능선으로 올라간다.
- 등산화 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고 안전하게 걷는다.
-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
- 발 디딜 곳을 잘 살펴 천천히 걷는다.
- 처음 몇 차례는 15~20분 정도 걷고 5분간 휴식하고, 차츰 30분 정도 걷고 5~10분간 휴식한 다음 산행에 적응이 되면 1시간 정도 걷고 10분간씩 휴식하는 것이 좋다.
- 산행 시에는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여 현재 위치를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내려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펴 안전하게 디딘다.
- 썩은 나뭇가지 풀, 불안정한 바위를 손잡이로 사용하지 않는다.
- 급경사 등 위험한 곳에서는 보조 자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